16. 책 읽는 방법

열여섯 번째는 책 읽는 방법이니,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여러 유생들이 학당에 일제히 모여 문묘에 배알하고 읍하는 예를 마친 뒤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 스승이 있으면 북에 앉고 여러 생도는 삼면에 앉는다.

장의가 소리를 높여 『백록동교조』 또는 『학교모범』을 한 번씩 읽는다. 장의가 유고 시에는 유사 혹은 글을 잘 읽는 자가 대리한다. 그러고 나서 서로 토론하며 실질적인 공부로써 권면하고, 스승이 있으면 스승에게 질문한다.

만일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강론을 통해 결정해야 하고, 여러 생도들이 의논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스승이 먼저 나가야 한다. 생도가 사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모이는 장소에 알려야 한다.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로 질병이 있거나 시골에 갔거나 기일을 당한 외에 사고를 핑계하고 참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두 번이면

1개월 동안 모임에서 출좌[27]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사장[28]에게 고하여 체벌을 의논한다. 출좌는 쫓아내는 것이다. 다시 복귀를 허락할 때는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꾸짖는다.

---

27 출좌(出座) : 모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28 사장(師長) : 스승과 장자.

해설

중국 강서성 여산 기슭에 백록동서원이 있습니다. 당나라 초기 이발이 이곳에 살면서 하얀 사슴을 길렀다고 합니다. 백록동이라는 말은 하얀 사슴이 노니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주자가 이 고장에서 지사로 재직할 때 폐허가 된 서원을 중수하고 학규를 제정하고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후에 중국 4대 서원의 하나로 위상이 높습니다.

주자는 서원에 학생들을 모아 도학을 가르칠 때 백록동규를 가지고 윤리적인 실천규범으로 삼았습니다. 도학의 요체를 간단명료하게 밝히기 위해 고심한 결과물입니다.

그 구성은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의 목표가 오륜을 밝히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학문하는 순서로 『중용』에 나오는 널리 배우고(박학), 자세히 물어보고(심문), 깊이 생각하고(신사), 분명하게 구별하고(명변), 독실한 실천(독행)을 말합니다.

이어서 실천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수신하는 요체로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말은 충성되고 믿음 있으며, 행실은 독실하고 경건하며, 분노는 억누르고 욕망은 막고, 선으로 옮겨가고 허물을 고칩니다. 네 번째는 일을 처리하는 요체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의로움을 따르고 이로움은 도모하지 않

는다.' '도를 밝히고 공은 따지 않는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의 요체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와 '행하여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에게 돌이킨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생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회입니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에도 오늘날 학생회 격인 재회(齋會)가 있었습니다.

장의가 재회를 열면 수복(재직, 부목)을 시켜 유생들에게 나아가 말하여, 서재의 대청 위로 빨리 모이도록 합니다. 유생들이 다 모이고 나면 나이대로 서쪽을 향하여, 북쪽을 상석으로 하여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수복이 이때에 장의를 인도하여 옵니다. 재직이 벼룻집을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는데, 수복이 먼저 일어나라고 소리치면 모두가 일어섭니다. 장의가 위쪽에서 마주서서 동쪽으로 향하여 유생득과 서로 읍하고 자리로 갑니다.

장의가 말을 하면 수복이 반드시 색장에게 아뢰고, 색장은 동의한다는 표시로 소매를 듭니다. 다음으로 고령자로 임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인 당장에게 아뢰면, 당장 또한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 뒤에 유생들에게 포고합니다. 당장은 장의가 모인 수에 따라 1–7명을 선정하고, 예에 상응하게 연소한 자로서 서기를 맡은 조사도 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연소자로부터 차례대로 찬성하면 거수합

니다.

율곡은 학생들의 자치회 안에도 분명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율곡이 말합니다. "생도가 사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모이는 장소에 알려야 한다.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로 질병이 있거나 시골에 갔거나 기일을 당한 외에 사고를 핑계하고 참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두 번이면 1개월 동안 모임에서 출좌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사장에게 고하여 체벌을 의논한다."

자치회에서는 유생들의 제반 문제들을 상의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상충합니다. 학교란 특성상 교육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도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안건들은 소수 의견이 좌우할 것이 아니라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율곡이 "만일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강론을 통해 결정해야 하고, 여러 생도들이 의논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스승이 먼저 나가야 한다."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할 수 있도록 스승이 자리를 비껴주는 예의가 엿보입니다.

조선시대는 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정했습니다. 유학을 유교라고도 하는 연유가 이에 있습니다. 학문으로는 유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유교라고 할 때는 종교처럼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유학이 과연 종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기독

교는 영생, 천국, 사제 등을 갖추고 있지만 유학은 이런 관념을 거부합니다. 종교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큰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개인의 세계관, 가치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유학을 배운 사람들은 공자, 맹자, 북송오자, 퇴계, 율곡 등의 가르침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삼습니다. 유학을 유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곡은 유생들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여러 유생들이 학당에 일제히 모여 문묘에 배알하는 예를 행한다.' 했습니다. 문묘는 공자 사당입니다.

반장 격인 장의가 교칙이 될 글을 읽습니다. 유생들이 올바른 공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각성시키는 차원입니다. 율곡은 『백록동교조』 또는 『학교모범』을 한 번씩 읽으라고 합니다.

『백록동교조』는 『백록동학규』로 앞에서 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학교모범』을 읽었다고 하니 율곡이 자신이 편찬한 『학교모범』을 주자가 지은 『백록동학규』처럼 중시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학교모범』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빠트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 한문 원전 음미하기

每月朔望. 諸生齊會于學堂. 謁廟行揖. 禮畢後坐定.
매 월 삭 망 제 생 제 회 우 학 당 알 묘 행 읍 예 필 후 좌 정

師長若在. 則坐于北壁. 諸生則坐于三面.
사 장 약 재 칙 좌 우 북 벽 제 생 칙 좌 우 삼 면

掌議抗聲獨白鹿洞教條及學教模範一遍.
장 의 항 성 독 백 록 동 교 조 급 학 교 모 범 일 편

因相與講論. 相勉以實功. 有師長則因以質疑.
인 상 여 강 론 상 면 이 실 공 유 사 장 칙 인 이 질 의

如有議事則因講定. 諸生有議事. 則師長先出.
여 유 의 사 칙 인 강 정 제 생 유 의 사 칙 사 장 선 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여러 유생들이 학당에 일제히 모여 문묘에 배알하고 읍하는 예를 마친 뒤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 스승이 있으면 북에 앉고 여러 생도는 삼면에 앉는다. 장의가 소리를 높여 『백록동교조』 또는 『학교모범』을 한 번씩 읽는다. 그러고 나서 서로 토론하며 실질적인 공부로써 권면하고, 스승이 있으면 스승에게 질문한다. 만일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강론을 통해 결정해야 하고, 여러 생도들이 의논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스승이 먼저 나가야 한다.

每: 매양/朔望: 초하루와 보름/諸生: 학생/齊會: 일제히 모이다/于: ~에/學堂: 학교/謁廟: 공묘에 배알하다/行揖: 읍례를 행하다, 인사하다/禮: 인사/畢: 마치다/坐定: 자리에 앉다/師長: 스승과 장자/若: 만약/在: 계시다/則: ~면/坐于北壁: 북쪽 벽에 자리하다/坐于三面: 삼면에 앉다, 북쪽을 제외한 삼면에 둘러앉다/掌議: 학생회장/抗聲: 큰 목소리/讀: 읽다/白鹿洞教條: 주자

가 지은 백록동서원 학규/及: ~와/學校模範: 율곡이 지은 학교모범/一遍: 한 번/因: 그 후에/相與講論: 함께 더불어 강론하다/相勉: 서로 면려하다/實功: 실제의 공부/質疑: 궁금한 것을 묻다/如: 만약/議事: 의론할 일/因講定: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다/先出: 먼저 나가다

諸生有故. 不能參. 則必具狀. 告于會處. 衆所共知.
제 생 유 고 불 능 참 칙 필 구 장 고 우 회 처 중 소 공 지

有病及的知下鄕及忌日外. 託故不參者. 至再度.
유 병 급 적 지 하 향 급 기 일 외 탁 고 불 참 자 지 재 도

則黜座. 一朔如是而有不來. 則告于師長論罰.
칙 출 좌 일 삭 여 시 이 유 불 래 칙 고 우 사 장 논 벌

黜座. 則俗所謂損徒. 還許座時. 必滿座面責.
출 좌 즉 속 소 위 손 도 환 허 좌 시 필 만 좌 면 책

생도들이 사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모이는 장소에 알려야 한다.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로 질병이 있거나 시골에 갔거나 기일을 당한 외에 사고를 핑계하고 참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두 번이면 1개월 동안 모임에서 출좌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사장에게 고하여 체벌을 의논한다. 출좌는 쫓아내는 것이다. 다시 복귀를 허락할 때는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꾸짖는다.

有故: 개인적인 일이 생기다/不能參: 참석할 수 없다/必: 반드시/具狀: 자세하게 사정을 밝히다/告: 아뢰다/于: ~에/會處: 모이는 곳/衆所共知: 학생들이 모두 알다/有病: 병이 있다/及: 및/下鄕: 고향에 가다/忌日: 기일, 제삿날/外: 외에/託故: 일을 핑계 대다/不參: 불참하다/者: 사람/至再度: 두 번이

되다/黜座: 모임에서 퇴출하다/一朔如是: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다/猶不來: 그래도 오지 않다/告于師長: 사장에게 고하다/論罰: 벌 줄 것을 논하다/卽: 곧/俗所謂: 세상에서 말하는/損徒: 짜르다/還許座時: 모임에 다시 나오도록 허락할 때/滿座: 모든 사람이 참석한 자리/面責: 대놓고 꾸짖다